현장체험기
NEW RACECOURSE

이상엽| 건축기술부차장

PROJECT SUMMARY

1. PROJECT NAME	: NEW RACECOURSE AT KRANJI
2. CLIENT	: SINGAPORE TURF CLUB (STC)
3. PROJECT MANAGEMENT	: PUBLIC WORKS DEPARTMENT (PWD)
4. PROJECT CONSULTANT	: INDECO CONSULTANTS PRIVATE LIMITED (ICPL)
5. ARCHITECTURAL & INTERIOR DESIGN	: EWING COLE CHERRY BROTT (ECCB)
6. MAIN CONTRACTOR	: SSANGYONG-GUANHO JOINT VENTURE (SGJV)
	- PHASE Ⅰ : SSANGYONG ENG. & CONST.CO. LTD.
	- PHASE Ⅱ : GUANHO CONST. CO. PTE.LTD
7. CONTRACT PERIOD	: 1996.11.29 - 1999.5.31 (30개월)
8. SITE AREA	: 812,000 ㎡
	- PHASE Ⅰ : 499,178 ㎡
	- PHASE Ⅱ : 312,822㎡
9. BUILT-UP AREA	: 262,982 ㎡
	- PHASE Ⅰ : 98,560 M^2 (B1,4F - 30,000 PERSONS)
	- PHASE Ⅱ : 164,422 ㎡ (2F- 1,000 STALLS, 4F- 3,500 CARS)
10.RACING TRACK	: 2,000M / 1,800M TURF TRACK
	1,500M SAND TRACK
	1,330M TURF TRAINING TRACK
	1,000M SAND TRAINING TRACK

SINGAPORE 관공사의특성상설계미비로인한 CLAIM을인정받는다는것은대단히어려운일이었다. ARCHITECT의입
는속내자신들의불완전함을충분히인정하는편이었지만공식적인회의석상에서는끊임없는싸움의연속이었다. 이렇게모두
신없이뛰어다니는가운데하나, 둘직원이충원되었고현장에서는그간의어려움을뒤로하고다시한번해보자하는생기가
다.

경마장 가는길

IMF라는 어두운 터널을 뒤로 한 채 김포를 이륙한 지어언7시간, 1년만에다시밟아보는 SINGAPORE CHANGI 공항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다. 덕분에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을 안고 공항을 빠져나왔다. 적도의열기를느끼며 시원스럽게뻗은 TPE를 달리다보니 저 멀리서 새까만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서울만한 크기의 조그마한 도시 국가지만 한 쪽은 구름 한점 없는화창한날씨, 그반대 쪽은 먹구름과 함께비가내리고있었다.

저만큼허허벌판위에웅장한철골스탠드가모습을 나타내고 그 속을 굵은 빗방울이 한차례 훑고 지나갔다. 적도의 열기가 가셨다는 나의 낭만적인 생각도 잠시, 약 15만평의 넓은 현장에서 많지 않은 우리 직원(10명)들이흙탕물과사투를벌이고있었다.

그렇게비와함께KRANJI 경마장에서첫날의일과는 시작되었다. 소장님(김국현이사)의 다정한미소에 이은모든공사는도면에서부터시작된다는평범한진리의말씀을뒤로하고설계실에들어서는순간부터기나긴도면과의싸움이나를기다리고있었다.

처음부터 촉박한 공기와 불완전한 도면 때문에 CONSULTANT와 시공사인 우리 사이엔 매일 계속되는회의를통한주도권쟁탈전이한창이었다.

무엇보다도도면의문제점을파악하고그속에서우리의 전략을 수립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렇게한달여가지났을때쯤조금씩길이보이기시작했고발주처측에서도우리의끈질긴문제점 제시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도면 발급 주장에 수긍하기시작했다. 그렇게되기까지설계실에서는계

속되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각 부문별(건축, 설비, 전기) 도면의 불일치에 대한 자료 제 LETTER를 발송하느라 눈코뜰새도 없었다. TECHNICAL/COORDINATION MEETING 에 대한 REVIEW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고, 공 무와함께공기및원가에영향을미치는요소를 이에따른CLAIM 자료준비및LETTER 발송 그것은참으로긴싸움이었다.

하지만SINGAPORE 관공사의특성상설계미 인한 CLAIM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 이었다. ARCHITECT의 입장에서는 속내 자신 불완전함을 충분히 인정하는 편이었지만 공식적 의석상에서는끊임없는싸움의연속이었다.

이렇게 모두들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가운데 둘직원이충원되었고현장에서는그간의어려움 로하고다시한번해보자하는생기가감돌았다.

매일 계속되는 회의 그리고 하루에 한번씩 우 소리와 함께 몰려오는 빗줄기, 공사과 직원들이 검은구름은꼭저승사자와도같이두려운존재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목표는 조금씩 눈 다가왔지만, 그 와중에도 잊을수 없는 몇 번의 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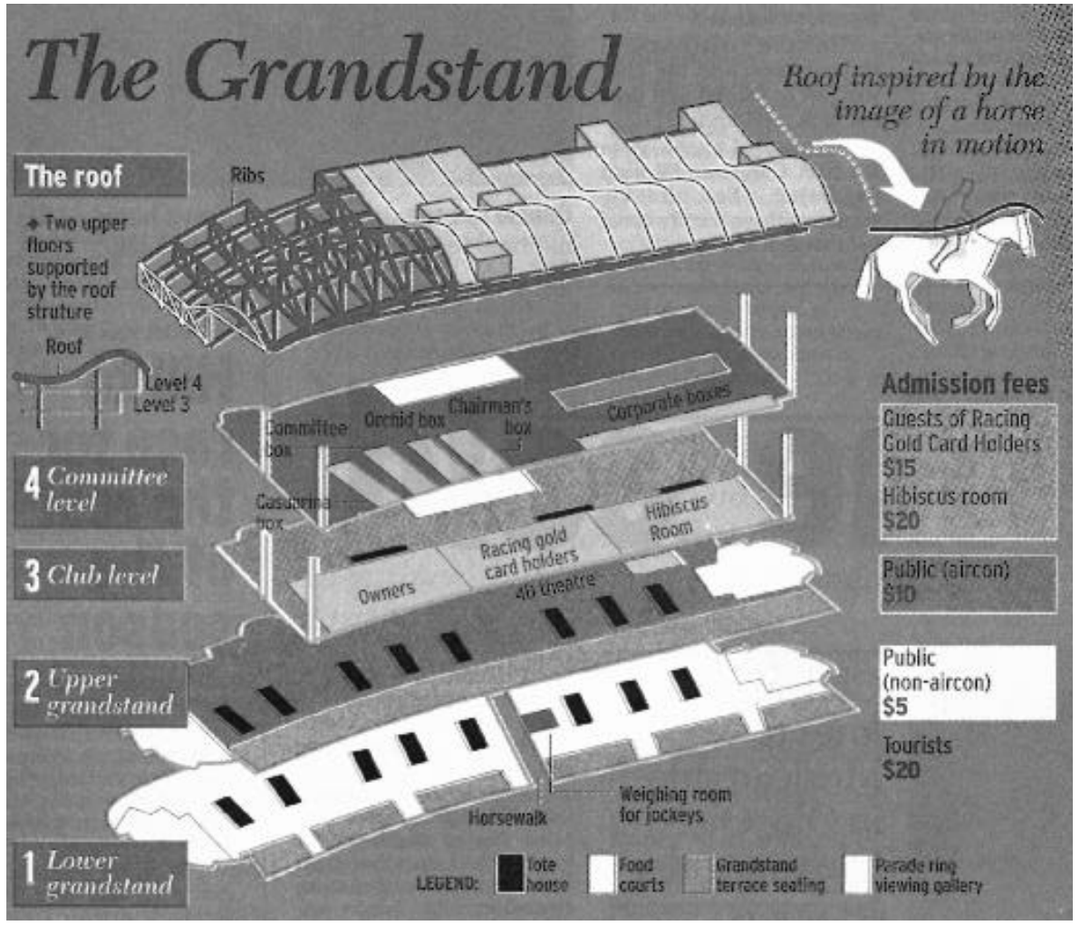
첫 번째는 공사가 시작한지 1년쯤 지나서 TRUSS 설치작업이었다.

기초공사부터 계속되는 비 때문에 조금씩 지연 공기는 TRUSS 설치가 늦어지자 발주처 그 CONSULTANT 모두 쌍용의 공기 준수 여부에 심각한우려를드러내고있었다.

소장님의' 사람의힘은무한하다 는독려속에 들 우려하던 거대한 TRUSS(개당95톤) 10개가

한 날에 성공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치, 완료되었고 그때부터 발주처의 우려는 조금씩 쌍용에 대한 신뢰로바뀌어갔다.

첫 번째 고비가 지나간후 두 번째 고비는 6개월후 다시찾아왔다. 경마장의핵심인잔디TRACK 공사가 현장의지반에 대한 내구성 문제와 자주내리는 비 때문에 지지부진했다. 애당초 지반에 대한 검토 미비에다가 경험 부족인 CONSULTANT의 우유부단함에 시간만 흘러갔고, 이런 상황에서 CONSULTANT를 탓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NU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토목 교수에게 공법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이결과에따른공법변경및공기연장을두고 논리싸움, 설득등또다시긴회의(전투)에들어가게 되었다. 결국은 CONSULTANT측에서도 우리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공기 연장에 대한 보상까지 받게되어모든것이순풍에돛을단듯일사천리로진행되었고 유일한 장애물인 비만 내리지 않기를 모두가 기원하며 남은 일에 매진하였다. 잔디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공사도 막바지로 치달을 즈음 엉뚱한 곳



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건축 공종 중 CRITICAL PATH로서모두의관심사항이던 외부 AL.CURTAIN WALL과 AL. CLADDING에서 하도업체의부도설로공기가지지부진하여 내부 마감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할 만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공사 담당 직원이 하루가 멀다하고 공장을 방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새로운하도업체를물색하는등, 분주한그와중에도비는 매일 한번씩 현장을 훑고 지나가고 모두들 해결 방법을찾기에고심하고있었다.

그러던 중 회의석상에서 소장님께서 지붕을 천막으로 덮자는 듣기에는 말도 안되는 방법을 제시하여 모두들 반신반의하며 SCAFFOLDING과 보양천으로 지붕 및 외벽을 보강하고 역으로 DRYWALL공사를 추진하였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어 약간의 누수가 있기는 했지만 주공정의 공기를 어느 정도 만회하게 되었고, 뒤늦게하도업체의부도설도진정되어본격적인 AL.공사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CONSULTANT의 신뢰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경마장이라는 특수한 건축 현장, 아니 토목성 현장과의혼합으로다양한공정의일을적지않은직원으로 시작해야 했던 2년6개월 동안의 싸움은 정말 전쟁과 다름없었다. 처음에는 자연과의 싸움 그리고 CONSULTANT와의 싸움,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두 이겨내고 99년 5월말 TOP을 받게 되었다.

TOP를받기까지많은난관이있었지만, 특히 4,100건의 AD(ARCHITECT'S DIRECTION)와 이에 따라 걸쳐 6개월간의 공기 연장과 700만S$의 공사금액을 발주처에게 동의를 얻어내기까지의 시간들장 기억에 남는다. 함께 힘이 되어준 직원들에게 드린다.

많은 시설들이 처음 시행하는 PROJECT이기 행착오도있었고보람도있었다.

그리고공사중갑작스러운야간조명등의추기 에 따른 도면 재검토, COORDINATION, 하지 때마다공기와원가를만회하려는소장님이하 들의빗물속의눈물이있었기에하나, 둘웃으면 울행비행기를탈수있었다.

1999년 9월25일 첫 번째 RACE을 앞둔 지금 속되는 발주처의 설계변경(A&A WORK)과 미 조경공사를 남겨 두고 있지만 현장 직원들은 이 처음이자마지막이될경마장 PROJECT를무사 내겠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 야간 조 아래서 이제는 다 자란 초록색 잔디트랙을 말들 리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경마장 가는 길은 참으 들었지만그만큼보람있었다고생각해본다.

그리고서울로떠나는마지막날에도현장에는 내리고있었다.